



[해외건설 법률플라자 2021] 제5회 대륙아주-해외건설협회 공동 웨비나

결과보고

2021. 12. 10

□ 개요

- 행사명: [해외건설 법률 플라자 2021] 제5회, 대륙아주 - 해건협 공동 웨비나
- 일시/장소: 2021. 12.9(목) 15:00~17:00 / Zoom 화상회의
- 주 최: 해외건설협회, 법무법인 대륙아주
- 후 원: 국토교통부
- 주 제: 한국의 건설산업과 탄소규제 및 호주의 신재생 개발산업에 대한 이해
- 참석자: 국토부 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, 정창구 센터장 등
국내건설 기업 등 약 100여 명

□ 주요 내용

- 개회사 (대륙아주, 이규철 대표변호사)
 - 행사 개요, 식순 및 참석자 소개
- 축사 (오성익 해외건설정책과장)
 -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, 해외건설기업의 법률적 애로를 해소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'해외건설 법률 플라자 2021'을 준비했음.
 - 최근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(COP26)는 글래스고 기후합의를 채택했고,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 참여자들은 온실가스 감축, 탈탄소 투자에 관한 선언을 발표하는 등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강

조하고 있음.

-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우리 건설업계도 탄소배출 감소,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,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기준으로 경영전략을 수정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
- 이번 웨비나를 통해 탄소중립시대에 건설산업의 대응 방안,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법률적 시장 및 기술적 측면의 이해, 관련 법령, 제도, 동향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랍.

○ 세션1 건설산업과 탄소규제(대륙아주, 이상봉 변호사)

- 탄소규제는 ESG의 핵심내용 중 하나로 ESG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
 -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관한 요소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철학을 담고 있음
 - 우리나라는 이에 발맞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함
 - ESG는 UN PRI 2006, UN17SDGs 등을 토대로 발전해옴
 - 이에 지배구조, 인권, 노동관행, 환경, 공정운영관행, 소비자 이슈, 공동체 기여 등 7대 핵심주제에 대한 실행 및 설명 책임 요구가 추가됨
-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연금법, 유가증권시장 공시, 탄소중립기본법, ESG 4법 개정안 발의 등을 통해 ESG 도입 및 적용을 추진 중
- 건설산업과 탄소규제
 - 네덜란드 정부 상대로 시민단체의 소송 제기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25% 감축하라는 판결이 나옴.
 -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(2015) 체결
 - 건설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철강, 시멘트, 운송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감축해야 함
 - EU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 중인데, 역내 제품 수입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인증서 구매 및 제출해야함. 도입분야 중 시멘트, 철강, 전력 등은 건설산업과 연관성이 매우 높아 대비가

필요함. 미국도 Carbon Tax 도입을 논의 중임.

- 금융기관이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하면서 탄소발생이 많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함. ESG 이슈를 토대로 건설사업 수행을 위한 보증 발급을 거절하는 사례도 발생함
- 시멘트, 철강 등 제도시 탄소배출 감축, 시멘트와 철강제품을 사용하는 건설회사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필요하고, 발주처의 요구나 탄소국경세 등 Supply Chain에서의 탄소감축 요구도 발생됨
- 탄소규제는 위기이면서 시장 선도의 기회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한 변화와 건설 자재, 건설 공정, 에너지 절감 건축물 등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등이 필요함

○ 세션2 호주 신재생 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이해(대륙아주 박미현 변호사)

- 호주 재생에너지 시장 거래는 브라운필드 및 개발 후기단계의 자산 뿐 아니라, 개발 초기 단계의 자산까지 포함하여 거래하고 있음. 동시에 거래대상이 되는 이러한 자산은 포트폴리오 또는 투자플랫폼처럼 패키지화되어 거래되고 있음
- 포트폴리오 거래 및 초기단계 투자회수 등의 내용을 고려해야 함
- 호주 초기 투자자들은 건설 리스크 및 투자 리스크를 부담해야하는데 리스크 헷지 능력이 사업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조건임
- 재생에너지 개발에 필요한 업무 및 타임라인을 사전에 검토해야함
- 타당성 조사(약 4개월) - 부지확보 - 착공 시점에 임대차 계약으로 전환 - 그리드 커넥션 확보 - 에쿼티 투자 - PPA 확보 및 EPC / O&M 계약 - 파이낸싱 등 전체 단계가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함.
- 신재생에너지 투자 시 고려사항
- 신재생에너지 수요 점검
- 추진국 정책의 불확실성 확인
- 신재생에너지 발전 계통 관성, 주파수, 변압, 전력흐름 등 전력전송

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

- 장기적으로 전력 요금을 고정하기 위해 장기 구매 계약체결을 위한 대규모 수요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 PPA 기회 확보 필요
 - 자금조달 관련, 은행은 대체로 예상 매출의 60% 이상이 PPA를 통해 창출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 16~20년 할부 상환을 기반으로 하는 mini-perm 구조임
 - 또한 PPA 상대방, 그린 프라이스, O&M 운영, 프로젝트 개발, 리파이닝 위험, 자본 회복, EPC의 질, MLF 위험 등을 고려해야함
 - 호주 전력시장은 Renewable Energy Target 제도에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원으로부터 전력 33,000GWh을 생산하고 유지해야 함
 - 호주전력시장은 지리적인 특성으로 NEM, WEM, NT 3개 시장으로 구분됨
 - 도매가격은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 움직이며 장기적인 전기 가격은 새로운 시장합류자들의 장기 한계비용으로 집중되며, 가격은 연료비, 각 발전소 효율성 및 탄소가격 등 단기간의 한계 발전 비용에 많은 영향을 받음
 - ESS에 전력을 저장하여 Peak 시기에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 극대화
- 세션3 한국의 수소산업 관련 법령, 제도 및 동향(대륙아주, 노현철 변호사)
- SK에코플랜트, 삼성물산, 포스코 등 건설부문에서도 수소 시장(설비, 저장 등) 진출을 위해 노력 중임
 - 수소산업 관련하여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 고압가스 안전관리법, 도시가스사업법,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, 대기환경보전법 등이 관련사항이 있음
 -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, 저장, 운송, 충전, 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, 부품, 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
 - 연료전지 제조 능력이 우수하여 우리 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40%에 달하며, 수소연료전지 분야 등 수소산업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

○ Q&A

- 건설현장에서 적용되는 탄소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
 - 녹색 건축물 또는 시공 방법에서 탄소 저감 기술을 개발 및 시멘트 철강 분야에서 탄소저감 방안을 강구해야 함
- 호주의 탄소배출권 시장
 - 호주는 2005년 교토의정서에 의거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, 탄소가격제 및 탄소배출 거래 제도를 도입했으나 산업계의 반발로 2014년에 도입 2년만에 탄소가격제도를 폐지함
- 호주 신재생개발 현황이 우즈벡, 칠레 등 다른 나라와 다른 점
 - 일반적으로 칠레, 우즈벡 등은 개도국으로 파이낸싱 조건상 일반적으로 ECA와 함께 들어가야 뱅커빌리티 확보가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PPP 구조로 추진이 되며, 호주는 민자발전 구조로 추진됨.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차이로도 볼 수 있음

□ 향후 계획

- 12월 22일 6회 웨비나(화우) 개최 추진

□ 웨비나 사진



- 정책지원센터 - 끝.